

유치원 100년 특별기획

유치원교육박람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SETEC 제1전시관에서 「유치원교육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개막식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참석하여 유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100년을 축하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

술부 이주호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창의적·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의 기초를 닦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욱 발전적인 100년을 위한 비전을 다함께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개막식에는 각 시·도 교육감 및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박람회장은 유아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별로 구분하여 유치원교육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학회의 현황과 특색 사업을 소개하였다. 각 전시관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유치원 100년 역사관

유치원 100년 전시관

- 과거 유치원 교육관련 자료를 연대별로 분류하여 전시
- 교육활동, 교재교구, 시설, 교사교육 등 주제별 변천사

영상관

- 유치원 100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상영

포토존

- 과거 유치원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

현재: 유치원 체험활동, 강연 및 상담

함께하는 우리체조

- 전통 무예동작을 활용, 국악에 맞춰 진행하는 준비체조 및 정리체조
- 교사가 호칭하는 신체부위를 찾아 두드리며 느낌 표현
- 리듬감 형성 및 순발력, 근력, 유연성, 균형감 등 증진

즐거운 음악놀이

- 그림책의 이야기를 노래와 악기연주, 동작으로 표현
- 음악적 표현력, 그림에 대한 관찰력, 감수성, 상상력, 어휘력 증진

유치원 교육 전문가 상담

- 유치원교육에 대한 각종정보 (안내책자 비치)
- 내아이에 대한 부모의 궁금증 상담
- 엄마, 아빠의 육아지수 테스트

신나는 체육놀이

- 철봉, 뛴틀, 평균대, 매트, 유니바 등 다양한 체육기구 활용 및 피구 경기
- 운동기능 발달, 긴장감 해소 및 신체능력에 대한 자신감 증진

아나바다 시장놀이

-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시장 체험놀이
- 절약과 경제 개념 및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 습득(본 박람회의 아나바다 수익금 전액을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함)

가고 싶은 동화나라

- 동화구연 선생님이 들려주는 멋진 동화세상
- 책에 관심가지며 문해력, 논리적 사고 및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력 신장

반짝반짝 모래놀이

- 모래를 자유롭게 만지고 놀면서 활동하는 모래놀이터
- 대소근육 발달, 상상 및 창의력,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협동심 증진

내맘대로 블록놀이

- 블록의 특성을 탐색하여 내가 원하는 형태의 평면 및 입체를 구성
- 대소근육 발달, 기초적 수학 및 과학 능력 발달, 사회성 증진

빙글빙글 바람개비

- 만들기 재료를 탐색하고 만드는 순서 및 바람개비 원리 이해하기
-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 자신감, 과학적 탐구 태도의 증진

로봇은 내친구

- 로봇을 조작하여 활동 선택 및 활동하기, 로봇과 친구되어 돌보기

재미있는 마술놀이

- 다양한 미술재료를 이용해 그리고 만들고 꾸미기
- 미술 재료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표현하며, 완성 작품을 설명 및 감상하기
- 상상력 및 창의성 발달, 심미감 및 예술적 표현 능력 증진

미래: 미래 정책관

유아교육선진화정책

- 추진 배경, 5대 정책분야 및 세부과제

「5세 누리과정」

- 도입 배경,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과거 전시관’은 사진과 사료, 과거 유치원의 다양한 활동 영상 등을 전시하여 유치원 100년 역사를 조망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현재 전시관’은 크게 교실·도서관·체험장 프로그램과 놀이터 프로그램의 두 테마로 나누어 유아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실제 유치원과 유사하게 영역별로 공간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교실 내 비치한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교실을 비롯하여 한 편에서는 ‘재미있는 미술놀이’와 ‘로봇은 내 친구’를 주제로 교실을 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여러가지 풀잎, 곤충 모형 등 자연물을 주제로 한 교구와 찰흙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 활동을 하였고, 일부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사 보조 로봇 전시를 통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R-learning 교육 소개와 유아의 체험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도서관은 유아들이 자유롭게 책을 골라 읽고, 전문 교사의 구연 동화를 듣거나 직접 동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구성하였으며 아나바다 장터는 경제 개념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전시관’의 놀이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모래놀이 영역을 비롯해 블록놀이, 체육놀이, 음악놀이 등으로 구성하여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 상담’ 코너에서는 현직에 있는 유치원 교사와 장학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정보를 안내하고, 자녀교육 상담을 제공하였다. 또한 김영옥 교수 등 6명의 대학교수가 놀이의 중요성, 한국전통문화와 유치원 교육, 로봇 활용 교육, 조기 영어교육, 부모역할과 관련된 주제로 8차례의 부모 대상 유아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직 교사들이 15차례에 걸쳐 우수 유치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시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세부 과제, 그리고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의 내용과 기대 효과를 소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긴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유치원교육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진 유치원교육정책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유아교육 역사상 최초로 열린 박람회였으며 3일에 걸쳐 총 3,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